

교훈

1. 우리는 제세주 수운천사님을 모양한다.
2. 우리는 유불선 합일의 대도를 천하에 전도한다.
3. 우리는 포덕천하 광제창생 보국안민의 삼대원을 성취한다.
4. 우리는 사람 섬김을 하늘님 공경하듯이 한다.
5. 우리는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지상천국을 건설한다.

수운교보

· 발행인: 총무원장 김 덕 환
 · 편집주간: 부총무원장 박 신 규
 · 발행처: 수운교본부
 · 발행소: 34059 대전시 유성구 지운로 245번길 80(추목동)
 · 창간일: 수운강생 175년(1996) 11월 15일
 · 전화 / 팩스: (042)861-1771·862-9436/862-1772
 · 인쇄처: 삼성디자인기획 (042)221-3111
 · 홈페이지: <http://www.suwoongyo.or.kr>

개교 제96주년 기념 봉축대법회

음 10월 15일 오전 10시



수강 198년 (2019) 10월 15일 (양력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금병산 도솔천 청정한 도량에서 수운교 개교 제96주년 기념 봉축대법회를 내빈 초청 없이 자체 행사로 조용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전날 저녁부터 아침까지 내리던 빗방울이 도행을 시작하면서 그치고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솔천과 각 지부 천법당에서는 경건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봉축대법회를 열었으며 본부에서는 김옥현 부법사원장의 사회와 이태화 경위사, 문제현 정필사, 김석기 사업부장의 집례로 시작하였다.

김덕환 총무원장은 봉축기념사를 통해 경전에 이르시기를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하여 그때를 기다리면 때가 와서 자연히 삼대원이 성취 되리라(修心煉性하여 以行其時면 時來則以成矣)” 하셨으니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여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자자손손 도를 닦고 쌓아 우리 모두 도성 덕립하기를 발원하였다.



합동 위령천도재 봉행

11월 12일(음 10. 16) 오전 10시 수운교 법회당에서 순국선열과 전몰군경, 부모 조상 선망신도 및 무주고혼을 위해 올리는 위령천도재가 봉행되었다.

수운교의 위령천도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갖고 있는 연례행사로 수운교의 자랑이며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날 집례에는 이태화 경위사, 김승천 정위사, 오영순 정위사, 문제현 정필사, 이장성 선교사 등이 집례를 맡아 모시었다.

초헌에는 김덕환 총무원장, 김석주 법사원장, 김상조 감리원장이 헌작하였고 아헌에는 전총무원장과 고문님들이 헌작하였다.

김덕환 총무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천사님께서 특별히 무주고혼의 해원상생을 강조하신 뜻은 대도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위함에 있으니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하고 또한 천사님께서 갑술년(1934. 4. 16) 첫 번째로 만성당 터에 포장을 치고 제단을 설치하여 전국의 신도 수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한 일을 설명하고 이날 천사님께서 특별히 설법하신 말씀 중에 “우리 수운교는 유불선 삼합의 대도인바 사람으로 태어나서 첫째로 하늘님과 부처님을 공경하고 숭배해야 된다.” 하시고 하늘님의 덕택이 아니면 우리의 인생을 위시한 일체 중생이 존속할 수 없고 또한 부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을 위시한 모든



영혼은 제도 받지 못하는 것이라 하셨다. 그러므로 오늘에 위령재를 모심은 세세생생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의 사악도에서 해매는 불쌍한 영혼들을 부처님의 원력과 법문에 의해서 이고득락하게 하는 뜻 깊은 천도재라고 하신 설법내용을 설명하고 모든 영령들의 왕생극락을 정성을 다해 기도하자고 당부하였다.

개교 제96주년 기념 봉축사



존경하는 교인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사님께서 무극대도를 온 누리에 펼치기 위해 교단을 세운지 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뜻깊은 개교기념일을 맞이해서 봉축법회에 참배하여 주신 내외 귀빈과 교인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각 지부 천법당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천사(佛天師)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후천오만년의 종교 성지를 하늘의 계시를 받아 정하신 금병산하 도솔천 청정한 도량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성스러운 봉축법회를 여러분과 함께 봉행하게 되어 무량한 감개를 느낍니다.

지나온 삼 십여 년을 돌아보니 민족종교라 일컫는 300여 개의 신흥종교가 계룡산 등 전국에 걸쳐 자리 잡고 있었으나 몇몇 종단을 제외하고는 그 종단의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다 흩어지고 흔적조차 없어졌으나 우리 수운교는 어려운 난관을 이겨내며 기적처럼 변화에 대처하며 파고 넘어왔습니다.

그것은 후천개벽의 올바른 방향을 하늘이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덕세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유교와 자비광명으로 중생을 구제하려는 불교와 자유와 평등을 함께 이루려는 노자의 선교를 하나로 합하여 한 하늘의 도(天道)를 완성하시고자 교단의 문을 열은 지 96년의 세월이 흘러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연구단지의 많은 석박사들과 자운대의 고급장교들, 공무원과 교수들이 스스로 동학과 수운교를 공부하여 그들 손님과 함께 탐방해서 설명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거의 매일 어린이, 초,중,고생들이 문화해설사와 함께 방문하여 수운교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아주 잘 해 주고 있어 우리교단의 홍보가 크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자발적으로 참배하고 공부하는 것은 산하대운이 우리 도에 오고 있음이요 천덕사은이 아닐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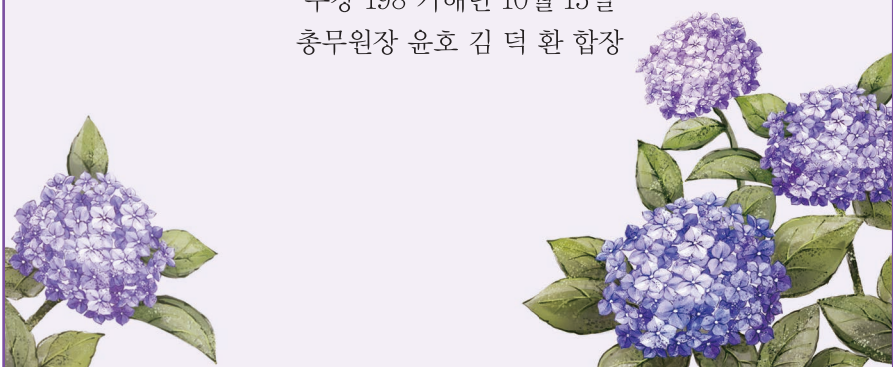
훈법대전에 말씀하시길 “성한운수 이미 다하고 쇠한운수 또한 지나고 나면 화평한 봄기운이 당도하리라” (盛運이 已盡하고 衰運亦過 하며 和平春氣 亦爲當到) 하셨으며 또한 동도전서에 이르시길 “우리 도가 변하고 바뀌며 한번 성하고 쇠함이 거의 팔십년 동안이니 (일성일쇠근어팔십년간 : 道變也易也一盛一衰近於八十年) 마음을 닦고 성품을 연마하여 그때를 기다리면 때가 와서 자연이루어지리라” (수심연성하여 이대기시 시래즉이 성의라 : 修心煉性 하여 以待其時 時來則以成矣) 하셨으니 정성과 공경과 믿음으로 가족과 이웃을 내 몸같이 아끼고 사랑하여 밝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자자손손 도를 닦고 덕을 쌓아 우리 모두 도성 덕립하여 천사님 재위 출세 하실 적에 눈 비비고 다시 보는 팔목상대 이루기를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성경신을 다하여 발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에 도덕 정치가 실현되고 도덕 문명을 보게 되는 것이 후천개벽이 완성되는 날이요, 삼대원이 성취되고 지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교기념행사에 만전을 다해 주신 임직원과 교인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뜻하신 일 모두 속득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강 198 기해년 10월 15일
총무원장 윤호 김 덕 환 합장



평화통일 3·7일 기도

삼대원 속득 성취와 조국평화통일 기원 특별기도 봉행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1일 동안 본부를 비롯한 각 지부에서는 삼대원 속득 성취와 조국 평화통일을 위한 특별기도가 있었다. 본부는 10월 16일 종공과 천사님 열반제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하였다. 집례를 맡은 봉령각 정위사(오영순)는 설법을 통해 삼대원 성취기도 종공을 천사님 열반제에 맞추어 봉행하는 것은 천사님의 대원을 우리들은 늘 잊지 않고 삼대원 성취에 성경신을 다해 기도함에 있다고 강조하고 더욱더 많이 동참하여 기도에 정진하여 바른 마음과 바른 기운을 길러 도성 덕립해야 한다고 설법하였다.

본부 하계 수련대회 실시



지난 9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본부 수련대회를 실시하였다. 첫날 60여 명이 등록을 마치고 단체복을 지급받아 갈아입고 오후 1시에 정이순 교화부장 경과보고에 이어 첫 번째 시간에는 이찬구(겨레얼 사무총장, 본부 법사원 법사)의 강의가 있었고 김덕환 총무원장의 교리요강, 김석주 법사원장의 수운교 역사, 강서조 고문의 설법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어서 봉령각에서 저녁예불에 참석한 후 자유토론 시간을 갖은 후 취침하였다.

이튿날(22일) 아침 7시에 교인 40여 명이 보령지부(유은숙 지부장)로 출발하였다.

태풍이 다가옴에 따라 험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악천후 속에서 보령지부에 무사히 도착하여 지부교인 20여명 등 50여 명이 법일 의식을 봉행하였다.

보령지부 교인들의 정성으로 점심공양을 마치고 대천항에 잠시 들러본 뒤 버스 안에서 수련대회 폐회를 하고 귀가하였다.



민족종교 예술제 및 민속놀이



지난 11월 2일 토요일 민족종교 협회회가 주관하는 제17회 민족종교 예술제와 올해로 6번째를 맞이하는 율놀이 한마당 대회가 서울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있었다.

박재희 민족종교 협의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천운이 민족종교로 돌아오고 있는 변화의 문턱에 서서 우리는 한민족 앞에 펼쳐지는 천하대운을 맞이할 준비를 철저히 하자고 하면서 오늘 행사를 통해 이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자고 당부하였다.

율놀이 한마당 대회는 오전 9시부터 전국 64개 팀이 출전하였고 수운교에서는 14개 팀이 출전하여 율놀이 문화를 체험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오후에는 수운교의 궁을 바라춤 공연(김영호 지휘 의전부장)이 문충식 일도지부장의 선두로 공연되어 참석자들로 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예술제에는 수운교, 천도교, 원불교, 태극도, 선교, 등 5개 단체가 출연하였고 평가에서 수운교 궁을 바라춤이 일등의 영예를 차지하였다.

대한민국 종교 문화 축제



지난 10월 12일(토) 11:00 ~ 19:00시까지 (사)한국 종교지도자 협의회(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체육부와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 22회 대한민국 종교 문화 축제”가 서울 청계광장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올해로 22회를 맞이하는 종교문화 축제는 한국의 대표하는 한국 7대 종교 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종교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이다. 올해에는 시민들과 함께 이웃종교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치유의 경험을 공유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사람이 있는 종교 ‘AROUND US’를 주제로 하였다. 수운교에서는 바라춤공연이 오후 1시 40분부터 약 20분간에 걸쳐 많은 시민의 관심속에 이루어져 수운교를 선양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출연 : 조양선, 김승천, 정이순, 이경화, 윤옥희, 오영순, 이우정, 유정임, 이순규, 이은숙 등)

수운교 독립운동사 (108군자 금병산기도사건)

1941년(수강 120년 신사) 5월 평북 용천출신 임만길 부인이 주지 이은영(1937년 수운교를 흥룡사로 개칭하고 귀속시킴)에게 이르되 “열반하신 교주님께서 명하시길 잠자는 교인들을 일깨워 기도정성을 다하여 삼대원을 성취케하라 하시니 교인들에게 이 말을 전하겠다.” 하니 주지 이은영은 임만길 부인을 고향으로 추방하였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추목리 박하규 부인을 만나서 전후사정을 알리니 이선영 외 10여 명이 결속하여 108 군자를 조직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108 군자들은 일경의 눈을 피해 야음을 타서 금병산 12봉 기도를 함께 진종불교의식이 아닌 수운교의식으로 행하고 태극기와 궁을기를 세우고 불천신명께 치성을 올린 후 대한독립 만세 3창과 수운교 만세 3창을 외치며 조선의 독립을 기원하였다. 이러하기를 약 반년 만에 사실이 발각되어 일본인 암무애가 108군자를 소집하여 추후 계속하면 엄단하리라 하고 108명부를 압수하고 소각하였으나 이후에도 은밀히 금병산에 올라 광복에 이르기까지 야음에 산상기도를 봉행하였으니 108군자 금병산 12봉기도이다. 이 기도에서 일본이 패망할 것이라는 영적계시를 얻었다. 또 12봉에 대해서 원로 박하규 부인 청풍 김씨가 강서를 받았는데 제① 광덕사해 옥련봉 ~ 제⑫ 창덕봉 등이다.

조국이 해방을 맞은 이듬해 1946년(병술) 미군정하의 관재청에서 나와 수운교는 일본진중에 귀속되나 일본은 패망하고 진중은 물러 갔으니 모든 시설과 재산은 적산에 해당하여 정부의 귀속재산이므로 수운교가 관리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의 총무원장 김이걸이 답하기를 강약이 부동으로 강제로 수운교를 폐하고 진중으로 귀속시킨 바였다.

그러므로 그 후 교주께서도 진중 배척죄로 대전 경찰서에 구금되고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어 영어의 신세로 고초를 받은이가 많았고 또한 평양 선교리 경찰서 미결수로 14개월간 수 십 명이 구속되어 고문을 당한 일들을 말하자 미군정관재청에서는 더 이상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

수운교의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철원 사건(김찬호사건), 선교리 사건(오무호사건), 금병산 12봉기도 108회사건 등이 비록 여러 가지 기록(재판기록, 수형기록 송치기록) 유실되어 정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해 서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수운교의 시설과 재산을 뺏기지 않고 보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점이 그분들의 공로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이를 기리기 위해 수강 178년(1999) 12월 13일 오후 2시 금병산 연화봉에서 1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금병산 비문 입석 산신제를 봉행하였다.

비문에는 금병산의 유래와 천강계시로 받은 12봉우리의 이름과 108군자의 기도공덕을 기리고 12봉우리명 표석을 세웠다.

화순지부 천법당 번와 불사준공



제주 화순 지부는 중건한지 30년이 지나면서 천법당 건물이 노후되어 금년 가을에 정위사 달호 송선호가 중건 불사를 시작하여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 있다.

천법당의 기와, 번와, 법당내부 단청, 천단 조성을 새롭게 하고 사성위패와 양위선생님 아미타불 부처님과 관음대세 보살님의 개금불사, 신중단 동진보살 탱화, 지장보살님 탱화 등을 다시 봉안하고 화장실 등을 수리하는데 본부와 지부 등 많은 교인이 동참하여 1억여 원이 소요되었다.

화순지부는 수강 146년(1967 정미년) 10월 27일 안덕지부(청정암) 소속 교인중 화순리 일대에 거주하는 교인들이 참배에 불편을 느껴 화순리에 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의하고 현재 위치에 선교소를 설치하고 제호자 송응수가 선교사로 취임하였다. 현 위치는 옛산방굴사 전설의 여주인공 女仙 산방덕이가 생활하며 수행하는 곳이라 전해지기도 한다. 수강 156(정사년) 10월 15일 대도 진리로 포덕교화에 노력한 결과 교인수의 증가에 따라 지부로 승격되고 초대 지부장에 제호자 송응수가 임명되었다.

수강 166년(정묘) 방화 화재로 인하여 천법당 건물이 전부 소실되었으나 교인들은 이에 동요됨이 없이 천법당 건물을 중건하기로 결의하고 수강 167(무진년) 중건불사에 착수하여 정성어린 회사와 노력봉사로 현재의 기와지붕 28평의 천법당을 중건하여 천단과 삼불상을 조성하고 지장, 신중 탱화, 사성위패를 함께 봉안하고 낙성식을 봉행하였다.

지부장은 조호자 송방은이면 현재는 달호 송선호가 정위사를 맡아 지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불사를 통하여 장엄한 완공에 이르게 되었다. 천법당 부지와 천법당 건물 등은 수운교 본부에 헌성하여 재단법인 수운교 기본재산에 편입되어 있으며 개금불사 점안식은 금년 11월 30일(음 11. 4)로 예정되어 있다.

전호 : 제1장 명수신편에 이어
제2장 명제가편을 기재합니다.

경 전

[훈법대전]

제2장 明 齊 家 명 제 가

집안 다스림을 밝힘

1 근어미은하며 계우독행하여 사무소곡하며

謹於微隱 誠于獨行 思無所曲

행무불선하여 이어가권하라

行無不善 以御家眷

미은에 삼가하며 독행에 경계하여 생각이 굽은 바가 없으며 행함이 착하지 아니함이 없어서 가권을 어거하라.

【훈】 미(微)는 적은 것이요, 은(隱)은 숨기는 것이요, 어(御)는 대접하는 것이요, 권(眷)은 남녀 아손을 일컫음이라.

【석】 미소(微小)하고 은익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느니 그 홀로 행할때를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사곡(私曲)한 생각이 없으며 착하지 아니한 일이 없게 해서 그 가정의 아손을 집대할지니라.

2 수자상하하며 법자상행하느니 수원이 불청이면 기류

水自上下 法自上行 水原 不清 其流

필탁이리니 상불행도면 하하학언이리오 부위자강이니

必濁 上不行道 下何學焉 父爲子綱

애수교훈이면 위인지자 | 상급우효오 부위부강이니

愛子教訓 爲人之子 想及于孝 夫爲婦綱

부화부순이면 음양상합이니 부이유경이어던 부필치경하라

夫和婦順 陰陽相合 夫而有敬 婦必致敬

물이 위로부터 내리며 법이 위로부터 행하느니 물 근원이 맑지 아니하면 그 흐름이 반드시 흐리니 위에서도 행치 아니하면 아래서 어찌 배우리오. 아버가 자식의 버리가 되니 자식을 사랑으로 교훈하면 사람에게 자식이 되어 생각이 효도에 미칠터이오. 지아버가 지어비에게 버리가 되니 지아버가 화하고 지어미가 순하면 음양이 서로 합할지니 지아버가 공경이 있거든 지어미가 반드시 공경을 이룰지니라.

【훈】 법(法)은 다스리는 것이요, 원(願)은 상류요, 화(和)는 평평한 것이요, 순(順)은 부드러운 것이요, 경(敬)은 온순한 뜻이라.

【석】 물의 상류가 맑은 즉 그 아래 흐름이 또 맑은 지니 부모 그 악한 것을 다스리고 착한 것으로써 가르친 즉 자손이 또한 그 착한 것을 배울지라. 고로 부모 그 자식을 사랑하고 예를 가르친 즉 자식이 반드시 그 효도와 공경을 부모에게 이룰지요, 지아버가

화평한 기운으로써 그 지어미를 대접한 즉 지어미가 반드시 순하고 유한 모양으로 그 지아버를 공경할 지니라.

3 부자자효하며 부화부순이면 가도정의리라

父慈子孝 夫和婦順 家道定矣

아버는 사랑하고 자식은 효도하며, 지아버는 화하고 지어미는 순하면 가도가 정하리라.

【훈】 정(定)이라 함은 위사람이 화하면 아래가 화하고 평하여 한결같이 정제함이라.

【석】 부자(父子)는 천륜의 친함이요 부부(夫婦)는 음양의 버리라 특별히 두가지를 들어서 인사에 버리를 밝히니라.

명제가하니라

明齊家

집안 다스림을 밝히니라.

제3장 明 輔 安 之 意

명 보 안 지 의

보국안민의 뜻을 밝힘

1 정기가도하여 화피권린하여 국보민안이

定其家道 花被厥隣 國保民安

인지수덕여부에 소계의니라

人之修德與否 所係矣

그 가도를 정하여 화가 그 이웃에 미쳐서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히 함이 사람이 덕을 닦고 다못 못하는데 매인 바니라.

【훈】 궤(厥)은 그요, 계(係)는 온전히 있는 뜻이라.

【석】 그 몸을 닦고 그 집을 가지런히 하여 그 덕화가 가까이 이웃에 입히며 멀리 국가에 미쳐서 나라를 보전하고 백성을 편히 하는 힘씀이 인민이 도를 닦고 덕을 닦는 여부에 있으니 만일 사람 사람이 이 같으면 어찌 운도 편치 아니함이 있으리요.

<이어서 다음 호에 게재합니다>



독도, 울릉도에서 '시민문화 강좌 및 연수회' 가져



독도는 한국 땅,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 땅! 한목소리로 외쳐

한국민족종교협의회(박재희 회장 직무대행)는 10월 28일(월)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여 '2019 민족종교 시민문화강좌 및 여성회와 청장년회 독도 울릉도 연수'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에는 민족종교협의회 여성회 청장년회 회원 106명이 참여하였으며, 2박 3일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각종 문화강좌 프로그램과 함께 독도를 방문하여 한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독도를 지키는 독도경비대 대원들을 격려하며 위문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또한 독도를 방문하는 자리에서는 행사 참여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천명하고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나가겠다는 결의문을 낭독하기도 했다. 결의문에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다. 이것은 역사의 진실이다. 따라서 일본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침탈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19세기~20세기 초 일본제국주의의 한국침략 정책을 21세기의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매우 부당하고 잘못된 침략정책이라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외쳤다.

20분밖에 되지 않는 독도에서의 접안시간이 못내 아쉬웠지만 배에서 내려 우리의 땅, 독도를 밟아보는 것만으로도 참가자 모두에게는 가슴 뭉클한 감동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한국민족종교협의회 여성회와 청장년회가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였다. 수운교에서는 박남형 신도회장을 비롯하여 10명이 참석하여 연수회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저녁 늦게 귀가하였다.

수운교인의 염원

천하명지 금병산하
도솔천에 참배하고



교화부장 정이순 글

수심정기 수련수도
일심동령 기도하여

용호도량 선인군자
도통군자 술 ~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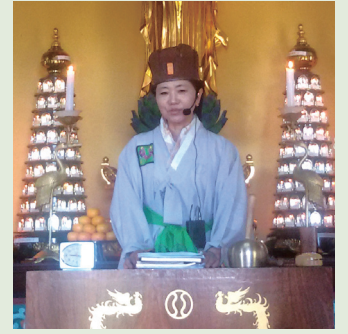
삼 대원 성취하여
지상천국 건설하고

만화귀일 일가동락
이룩하여 만 만 세



특별 통일 기도를 마치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삼대원 속득성취를 위한 기도를 취임 후 세 번째로 봉행하면서 지금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문화제로 등록되어 있는 봉령각은 이름 그대로 신령스런 영적기운이 흐르는 기도도량이고 또한 그렇게 체험하신 교인들이 많이 있다고 한다. 늘 봉령각의 환경을 기도도량으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봉령각 오영순 정위사

아무리 영험한 기도도량이라고 해도 좋은 기운만 흐르는 것은 아니며 탁한 기운도 함께 흐르기 때문에 맑은 기운을 모으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는 기도를 꾸준히 함으로써 훌륭한 기도도량이 될 수 있음을 늘 생각해 보았다. "탄도유심급에 말씀하시기를 흐린 기운을 씻어 버리고 맑은 기운을 어 린에 기르듯 하다." (消除濁氣하고 兒養淑氣하라) 하였으니 금번 기해년 삼칠기도는 정성을 다해 "부처님의 지혜광명과 불천사님의 원력이 모든 교인 들께 비추시길 발원하며 열심히 봉행하였다.

봉령각 상량문의 발원에는 "좌좌향 정남향도국이요 견성성불하신 부처 님이 상주하시는 견고한 최상승의 도량이고 중생들이 바른 진리를 깨달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곳이며 성인의 덕으로 영적 감응을 받아 모든 원을 성취케 하는 기도도량이라고 전하고 있다.

복잡한 현실 속에서 불편한 기운이 들어오면 곧바로 인식하고 수용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대도의 한 방향으로만 맞추어 나가는 수행의 시간들이었다.

마음속에는 늘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나 탁한 기운을 씻어내고 정화시켜 맑고 선한기운을 쌓아가며 3·7일 동안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기도하다보니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도 마음이 정화되고 도량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둘 해결되고 시끄럽던 나라도 점차 평온이 찾아온 것 같으며 불평과 불만이 있던 교인들도 도를 받들고 수행하며 매사에 조심하고 있음을 느꼈다.

옛 부터 봉령각에서 3·7일을 충실히 기도하면 못 이룰게 없다고 하신 선배 동덕님의 말씀들을 새삼스럽게 체험한 시간이었다.

앞으로 더욱더 좋은 기도도량을 가꾸어 나가는데 성경신을 다해 정진할 것을 3·7일 기도를 마치며 다짐해본다.

수운교 궁을 바라춤



지난 11월 2일 (토) 민족종교협의회에서 실시한 민족종교 예술제에서 수운교 궁을 바라춤이 시민평가단 평가에서 영예의 우승을 하였다.



동정

☞ 교주 열반제 엄수 봉행

지난 10월 16일(음 9. 18일) 본부를 비롯한 각 지부에서는 수운천사 출몰자 교주님 열반제를 봉행하였다. 본부에서는 삼대원 속득성취와 평화통일 삼칠기도 중공에 맞추어 총무원장과 법사원장 등 교인 50여 명이 참배하였다.

교주이신 수운출몰자님은 수강 117년(1938) 9. 18일 오전 온천지가 백설강산으로 뒤덮인 가운데 열반하시니 세수 117세이시다.

☞ 백일기도 입재

8월 27일(음 7. 27) 오후 2시 봉령각(정위사 오영순)에서 교인 300여 명이 동참하여 백일기도 입재를 봉행하였다.

☞ 도솔천 방충 작업 실시

8월 26일(음 7. 26) 문화재청에서는 3일간에 걸쳐 도솔천의 흰개미 방충 작업을 실시하였다.

☞ 금병 봉사단 추석맞이 제초작업



금병 봉사단(정기백 단장)은 지난 9월 7일 10여 명이 동참하여 무더위속에서 공설묘지, 천사님묘소, 산제단 등 추석맞이 별초작업을 하였다.

☞ 인등 200일 기도

지난 9월 1일(음 8. 3) 오전 10시 봉령각(오영순 정위사)에서 인등기도 200일에 50여 명의 교인이 참석한 가운데 정성껏 봉행하였다.

오영순 정위사는 『훈법대전』 명수신장의 설법을 통해 마음이 바르고 기운이 바르면 능히 도와 덕을 이룰 것이니 마음과 기운을 바르게 하고 도와 덕을 한결 같이 기도도 닦아서 바르게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 황매산 산왕기도



본부 신도회(박남형 회장)가 주관하는 가을 산왕제를 지난 20일(일) 경남 산청군에 있는 황매산(해발 1113m)에서 교인 12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김승천 정위사, 문제현 정필사, 이장성

선교사의 집례로 봉행하였다.

화창하고 시원한 가을 날씨 속에서 행사를 마치고 귀교 길에 동의보감 전시관에 들러 한시간 가량 관람을 하고 무사히 귀가하였다.

☞ 경자년 달력 출간



경자년 새해 달력을 각지부와 개인에게 배송하였다.

달력은 예년과 같이 13장 14쪽으로 편성하였으며 음력 일자를 양력일자 바로 아래

배치하여 숫자를 고르게 하였으며 일자 아래 빈공간을 두어 가정이나 개인의 일정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 법사회의

지난 10월 27일(일요일) 오전 11시 법사회의가 복지관 회의실에서 김석주 법사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참석하여 개교 제96주년 기념 준비에 의한 집행위 심의 확정하였다.

☞ 기념행사 준비



지난 11월 6일(음 10. 10) 개교기념 봉축법회를 앞두고 부녀회(김은택 회장)와 신도회(박남형 회장)를 비롯한 교인 30여 명이 삼단의 불기를 정결하게 닦았다. 깨끗한 불기에 공양물을 담아 올리는 교인들의 정성이 연례행사로 이어지고 있으며 동참한 교인들은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금년에도 시행하였다.

☞ 도량 정화 작업 실시

개교 기념 봉축법회를 앞두고 지난 11월 3일 일요일 신도회(박남형 회장)에서는 복지관 청소 및 도량정화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11월 10일 일요일에는 금병봉사단(정기백 단장)이 삼단의 낙엽제거 도량정화로 개교 기념 봉축법회 준비를 하였다.

☞ 해평 고 한양원 회장 3주기 추모식 거행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와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는 11월 11일(월) 오전 11시에 협의회 3층 대강당에서 해평 한양원 회장의 3주기 추모식을 거행했다. 한양원 회장은 지난 2016년에 별세하였다. 생전에 인연을 가졌던 많은 종교인들과

일반 참배객 100여 명이 3주기 추모식에 참여해 고인의 평소 민족의 정신과 얼을 다시 한 번 경청하며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고인은 1985년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창립하여 32년 간 회장을 역임하였으며 개천절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장 자격으로 평양을 다녀오기도 했다.



☞ 4352년 개천절 기념식



(사)한국민족종교협의회, (사)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광복회 등 민족진영이 참여한 개천절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는 10월 3일 11시, 광화문 북쪽광장에서 4352년 개천절 기념식을 봉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은 3부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는 선교의 주관으로 천제를 봉행하였으며, 2부 기념식에서는 김원용 광복회장의 대회사, 박재희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의 기념사, 도천수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가 있었다. 마지막 3부에서는 화합의 대축제가 있었으며, 저녁 만찬시에는 세종홀에서 박정학 박사(한배달 이사장)의 “개천절의 현재적 의미”를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 역사쓰기

자기 역사는 자기가 써 두어야 한다. 천사님께서서는 누차 말씀 하시기를 “자기 역사는 자기 손으로 써두어야 한다”고 하셨다. 또한 천사님께서서는 “자식과 손자가 있다고 해도 자기 부모나 조부모의 일생 역사를 쓰기가 어려운데 향차 다른 사람이야 일러 무엇 하겠느냐” 하셨다. 또 기사년(1929년)에 있었던 일로 전해오는 말씀이 도성덕립하는 날에 만성당을 3층으로 짓고 공덕과 품계에 따라 위패를 상, 중, 하로 모실 때 역사와 사진이 필요하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고 하셨다 한다.

천사님께서서는 이와 같이 간절히 부탁하셨지만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한다. 금번 변문호 고문님의 자기 역사를 손수 쓰셔서 본부에 보내 주시면서 자기 역사 쓰기를 적극 권장하시었다. 지금 부터라도 자기의 역사는 꼭 자기 손으로 정리하여 기록해 두기를 당부합니다.

제주 감무원 하계 수련 대회



제주 감무원(양원홍 원장)은 지난 9월 28일(음 8. 30) 토요일 일도지부에서 제주지역 교인 170여 명이 참석하여 심신을 수련하고 교인들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수련대회를 실시하였다.

해마다 제주감무원이 실시하는 수련법회를 작년(수강 197년)에는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개최하지 못했으나 금년에는 천법당 보수와 개금불사를 마친 일도지부(문충식 지부장)의 장엄한 도량에서 많은 제주 지역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본부에서는 박신규 부총무원장과 김옥현 부법사원장이 참석하였다.



봉개지부 경로잔치



봉개지부 지부장(김석보)은 지난 10월 5일(토) 지역 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경로잔치를 베풀었다.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12번째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사인여천을 실천하고 있으며 효행이 만사의 시작이고 중심이라는 경로사상을 통해 교화에 힘쓰고 있어 지역사회와 본부 및 지부의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봉개지부 교인 성지순례



8월 23일 제주 봉개지부 지부장 김석보와 청정봉사단장 김옥산 등 지부 교인 37명이 성지 순례차 본부를 방문하여 삼단을 참배하고 도솔천과 봉령각에서 치성을 드린 후 도성암등을 참배하고 2박 3일 동안 성지 순례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수운교 청정봉사단



수운교 제주 청정 봉사단(김옥산 단장)외 22명이 도솔천과 봉령각, 법회당 등을 참배하였다.

총무원장은 환영인사를 통해 청정 봉사단의 눈부신 활동에 감사하며 늘 건강하시길 당부하였다.

수운교 청정봉사단

수운교 청정봉사단(김옥산 단장)에서는 수운강생 198년 10월 5일 단원 22명이 제주시 봉개동 주민 센터에서 수운교 봉개지부(김석보 지부장)가 개최한 경로잔치 행사장에서 점심공양 등의 봉사활동을 하였다.

11월 1일에는 제주시 애월항에서 개최된 재난 대응 훈련장에서 현장을 찾은 행사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에게 음료봉사를 하였고 지난 10월 18일부터 20일 까지 연인원 15명이 나인브릿지 골프장에서 개최된 PGA투어더 CJ 컵 골프대회 행사장에서 주차관리를 하였으며, 10월 12일에는 제주시청 및

시내일원에서 개최된 제58회 탐라문화재 가장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하였다.

주간행사는 거름 없이 매주 수요일 제주시 노인복지관에서 200인 분량의 음식을 조리하여 노인들에게 급식을 하고 있고 또한 매주 토요일이면 독거노인 12분에게 반찬 배달 등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제주도 전역의 봉사단체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단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수운교의 홍보와 교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계·시·관

하반기 법회안내

〈문의 ☎ (042) 861-1771〉

● 초하루,보름기도	매월 음 1일, 15일	오전 7시 20분	3 단
● 백일기도치성	매월 음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수련기도	매월 음 1일~7일	오후 2시	봉령각
● 법일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법회당
● 동지	양 12월 22일	오전 07시 23분	법회당
● 백일기도입재	음 11월 27일	오후 2시	봉령각
● 해맞이	양 1월 1일	오전 6시	금병산
● 인등기도종공	음 12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
● 조왕재일	음 12월 30일	오후 3시	장 실
● 설 날 (경자)	음 정월 초하루		3 단
● 용왕재일	음 정월 3일	오후 3시	장 실
● 산왕재일	음 정월 6일	오후 3시	산제단
● 정월기도입재	음 정월 7일	오후 2시(7일간)	법회당
● 인등기도입재	음 정월 10일	오전 10시	봉령각
● 입춘	양 2월 4일	오후 6시 3분	법회당
● 성덕군탄일	음 정월 15일		
● 위령재일	양 3월 1일	오전 10시	법회당
● 신장재일	음 2월 7일	오후 3시	광덕문

공 · 기도비를 납부합니다

공·기도비(7만원)는 수운교 교헌에 의하여 매년 음력 4월 15일과 10월 15일에 납부하는 교인의 의무입니다.

〈문의 ☎(042) 861-1771〉

농협 453116-51-010348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새마을금고 9002-1796-7840-6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 본부 국내 교인만 입금하고 지부교인은 소속지부에 납부바랍니다.

포덕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포덕성금은 3대원(포덕천하, 강제창생, 보국안민) 성취를 위해 교화사업을 하기 위한 성금입니다. 3대원 속득 성취를 위해 많은 분들이 성금 모금에 동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면 됩니다.

농협 453116-51-062203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장학성금 모금에 동참합니다

장학성금은 수운교인 또는 수운교와 인연이 있는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주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성금입니다.

1인 1만원 이상 자동이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농협 453116-51-073795 〈예금주 : 재단법인 수운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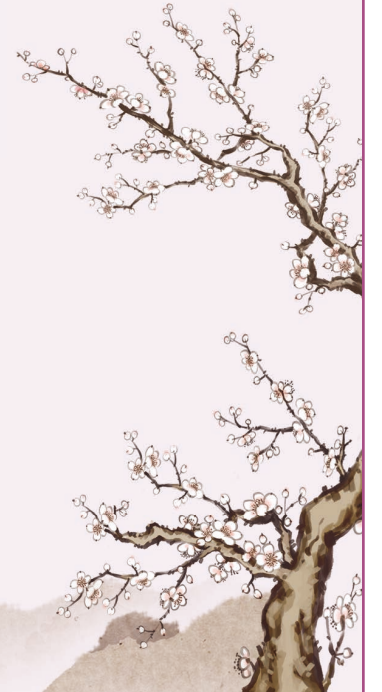


왕생극락을 기원합니다

학선군부인 양복자(子 여매화)

도를 가장 잘 쫓는 모습은 물과 비슷하네 도덕경(노자) 8장

도를 가장 잘 쫓는 모습은
물을 닮았네
물은 도와 같이 만물을 이롭게 하되
남과 다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무네
그러므로 물은 도에 가깝네
머무를 때 도를 쫓는 모습은
땅을 살펴서 머무는 것이고
마음을 간직할 때 도를 쫓는 모습은
깊이 있는 것이고
남과 어울릴 때 도를 쫓는 모습은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고
말할 때 도를 쫓는 모습은
거짓이 없는 것이고
바로 잡을 때 도를 쫓는 모습은
혼란을 다스리는 것이고
일할 때 도를 쫓는 모습은
능히 해내는 것이고
움직일 때 도를 쫓는 모습은
때를 잘 가리는 것이네
무엇보다 모름지기 다투지 말아야
허물이 없네



회사금 명단

▶ 현금 회사

- 200만원 이상 : 김석보(봉개지부장)
- 100만원 이상 : 김명찬, 청정봉사단(김옥산), 김형식(봉개지부), 강훈표(봉개지부), 최성수
- 50만원 이상 : 김승갑, 여매화
- 30만원 이상 : 이영주, 김전중, 최길자
- 20만원 이상 : 박종락
- 10만원 이상 : 나예주, 안상원, 박선례, 이광수, 황수업, 익명

▶ 화환 · 화분

- 대성건업(고용혁, 한경숙), 나리목장(강훈표, 고양선), 부원전기통신(강봉수), 화성전기(박성철, 전연숙), 우성유통(김희선, 박은희), 화진건설(김창도, 김연심), 국민건강원(한영무, 고순이), 탄동새마을금고, 본부 신도회 일동, 본부 부녀회 일동, 금병봉사단 일동 청정봉사단 일동(제주), 김형식(강영녀)

▶ 물품 회사

- 석영일(명원마을), 이현종, 허송자(제주), 이상성, 김도현, 강순애(제주), 강수연(제주), 김성균(제주), 고효지(제주), 윤옥희, 이은숙, 최춘자, 이미경, 백용란, 유희자, 안정숙, 손만순, 민송순, 김덕명, 유만준, 이기준, 익명

2020년 경자년 해맞이

경자년 새해 새아침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다함께 새 희망을 안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 ▶ 일시 : 수강 199년(2020) 1월 1일(음 12. 7) 수요일 오전 6시 복지관에서 출발
- ▶ 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추목동 금병산 운수봉
- ▶ 주관 : 수운교 본부 신도회